

해양수산가족 신년인사회 “해운업 재건 성과 가시화에 총력”

“연관산업과 상생협력이 살길, 서로 밀어주고 끌어주자”

기해년(己亥年) 새해를 맞아 해양수산인들의 화합과 동반발전을 다짐하는 자리가 열렸다.

2019년 해양수산가족 신년인사회가 ‘바다는 우리의 미래입니다’를 캐치프레이즈를 내걸고 1월 3일 세종문화회관에서 개최됐다.

해양수산부, 한국해양산업총연합회, 한국수산산업총연합회가 공동주최한 이날 행사는 해운업 및 수산업 단체 대표와 정부 관계자들이 대거 참석해 성황을 이루었으며, 개회선언과 국민의례, 내빈소개, 신년인사 및 축사에 이어 4인조 팝페라그룹 ‘케이페라 너울’ 팀의 축하공연과 함께 화기애애한 분위기 속에서 신년 축하떡 절단식 및 건배, 오찬 등이 진행됐다.

이날 해양수산부 김영춘 장관은 신년인사말에서 “2019년을 해운산업 재건의 성과가 가시화되는 한해가 되도록 모든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강조했다. 김

장관은 먼저 “작년말에 청와대 조직개편을 통해 여기 저기 흩어져 있던 해양수산분야의 기능을 농해수 비서관실로 다 모았고, 선임 행정관으로 해수부에서 고위공무원을 파견하는 식으로 재편했다”고 운을 떼었다. 김 장관은 이어 “지난해 침체된 해운산업을 지원하기 위해 해수부 뿐 아니라 관계부처 합동으로 해운재건 5개년 계획을 세우고 해양진흥공사를 설립해서 해운재건의 기틀을 마련했다”면서 “새해에는 지난해 마련한 제도적인 기반을 토대로 선박의 신조발주와 해운물류기업의 재편 그리고 친환경 해운체계로의 체질개선을 적극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부산항 제2신항 입지를 확정하는 등 스마트해상물류체계 구축을 추진하여 우리나라 항만들이 체계적인 국제물류중심지로서 거듭날 수 있도록 만들겠다”고 말했다.





“대한민국 해양수산 파이팅” 구호 선창한 장관

또한 김 장관은 해양레저 관광산업 활성화를 위해 해양관광 복합단지 조성 and 해양치유센터, 마리나비즈 센터 건립 등을 추진해 전국 권역별로 특화된 해양레저 관광산업을 육성한다는 계획을 밝혔다. 해양모태펀드 신설을 새로운 디딤돌로 삼아서 상용화와 연계되는 R&D 시스템을 구축하고, 산학 지원센터 기능 강화로 해양산업의 창업 투자 생태계를 새롭게 만들어 나가겠다고 했다. 국민생활과 밀접한 미세플라스틱과 항만 도시의 미세먼지를 비롯한 해양환경문제에 대해서도 종합적인 대책과 제도를 마련하기로 했으며,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 설립과 운항관리자 증원으로 사고예방과 대응체계를 한층 강화한다는 계획이다.

이밖에도 최근 남북관계 개선으로 서해평화수역과 경제특구, 동해관광특구 설치 합의 등 항만과 바다에서 새로운 가능성이 열려가는 만큼 이에 대한 사전준비도 철저히 해나간다는 방침을 밝혔다.

김 장관은 “우리에게는 최근의 위기를 극복할 수 있는 충분한 저력이 있다고 생각한다. 어려운 시기를 슬기롭게 헤쳐 나가고 미래를 잘 준비해나간다면 우리가 목표로 하는 글로벌 해양강국은 한걸음 더 성큼 다가올 것이라 확신한다”고 전했다. 김 장관은 신년사 말미에 “대한민국 해양수산 파이팅”을 선창했고 참석자들은 “파이팅”으로 3번 화답했다.

한국해양산업총연합회 이윤재 회장은 신년사에서 “해양산업계도 지난해 많은 일들이 있었다. 해운재건

5개년계획이 확정된데 이어 한국해양진흥공사가 설립되는 등 본격적인 해운산업 재건활동에 들어갔다”면서 “금년도 세계경제도 무역분쟁의 장기화, 선진국 경제의 성장률 둔화 등 녹록치 않은 상황이다. 장기불황으로 힘든 나날을 보내느라 지치고 위축될 수 있으나 이럴 때 일수록 용기를 잃지 않고 더욱 분발하기를 바란다”고 격려했다.

또한 이 회장은 “무역, 해운, 항만, 조선, 철강, 금융 등 연관 산업과의 상생협력만이 해양산업을 비롯한 모든 분야가 활력을 되찾는 길임을 인식하고 서로 밀어주고 끌어주는 한 해가 되어야겠다”고 강조했다.

이날 신년인사회에는 해양수산부 김영춘 장관, 한국해양산업총연합회 이윤재 회장, 청와대 최재관 농해수 비서관, 허성관 전 해수부 장관, 최장현·강문석·손재학 해수부 전 차관, 전국해상산업노동조합연맹 정태길 위원장, 해양수산부 정책자문위원장 김인현 교수, 한국해사문제연구소 박현규 이사장, 남기찬 부산항만공사 사장, 남봉현 인천항만공사 사장, 차민식 여수광양항만공사 사장, 한국선급 이정기 회장, 한국선주상호보험조합 박정석 회장, 한국해운조합 임병규 이사장, 선박안전관리공단 이연승 이사장, 목포해양대 박성현 총장, 한국도선사협회 임상현 회장, 한국해기사협회 이권희 회장, 한국선박관리산업협회 강수일 회장, 한국항만물류협회 손관수 회장, 국립해양박물관 주강현 관장 등 400여명의 해양수산인들이 참석했다.

〈강미주〉

부산항 노사정 신년 인사회 “한마음으로 부산항 발전 이루자”

부산항 항만 노사정 신년 인사회가 1월 14일 한국항만연수원 부산 연수원에서 열렸다.

이번 인사회에는 부산지방해양수산청 김준석 청장, 부산항만공사 남기찬 사장, 부산항운노동조합 김상식 위원장, 부산항만물류협회 이준갑 회장, 부산항만연수원 최재준 원장 등 정부 및 노동조합 관련자와 부산연수원 교직원 등 약 100여명이 참석하였다.

신년인사회에서, 부산지방해양수산청 김준석 청장은 노·사·정이 한마음으로 부산항 발전을 이루어야 한다고 강조하고, 항만종사자의 교육·훈련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협조하겠다고 하였으며, 부산항만공사 남기찬 사장은 어려운 경제와 급변하는 항만 환경 속에서 항만종사자의 교육·훈련이 절실히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했다. 부산항운노동조합 김상식 위원장은 항만에서 안전이 제일 우선이라고 강조하고 조합원의 효율적인 교육·훈련을 위한 연수원 시설 및 장비에 대한 지원을, 부산항만물류협회 이준갑 회장은 안전사고예방을 위한 안전교육의 지



원과 역할을 위해 참석한 여러 기관의 협조를 당부하였으며, 끝으로, 부산항만연수원 최재준 원장은 열과성을 다해 항만종사자의 교육·훈련을 실시하여, 부산연수원을 최고의 항만전문인력양성 교육기관으로 발전시켜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곧이어, 항만종사자의 효율적인 안전교육을 위하여 부산항만공사가 지원한 안전교육용 차량(34인승 버스)에 대한 지원행사가 진행되었으며, 지원차량에 대한 테이프 컷팅과 참석자 기념촬영 등을 마치고 부산항만연수원의 주요시설 및 장비 등을 참관하면서 이날 행사를 성황리에 마쳤다.

콤파스클럽 신년회 ‘해운업 재건 위한 해양진흥공사 역할’ 강연

콤파스클럽(회장 박현규)의 기해년 신년회가 1월 4일 로얄호텔에서 ‘해운산업 재건을 위한 한국해양진흥공사의 역할’을 주제로 개최됐다.

이날 신년회에는 조정제 전 해양수산부장관, 이운재 한국선주협회 회장, 신태범 KCTC 회장, 백옥인 전 KL-Net사장, 박정석 고려해운 회장, 이환구 흥아해운 부사장, 서성훈 천경해운 부사장, 서명천 동영해운 부회장, 이상복 범주해운 사장, 정병석 김&장 변호사, 김인현 고려대학교 교수, 문병일 KP&I 전무, 이형철 한국선급 전무 등 35명이 참석했다.

강연자로 초청된 박광열 한국해양진흥공사의 혁신경영 본부장은 국내 해운산업 재건을 위한 해양진흥공사의 설립 배경과 역할에 대해 소개한 뒤, 향후 동 공사의 과제



로 해양금융시장의 마중물 역할과 자금 선순환 구조 형성을 꼽았다.

박 본부장은 정책금융기관과 공조를 강화하고 민간금융기관 참여를 확대하는 한편 해운금융 지원대상 확대를 통해 해운산업 재건과 해운시장 안전판 역할을 해 국가경제 발전에 기여한다는 공사의 향후 운영방향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인천항 항만가족 신년인사회 “크루즈 및 국제여객터미널 개장운영 첫 해”

인천항만공사는 2019년 기해년 새해를 맞아 1월 7일 인천 하버파크에서 ‘2019 인천항 항만가족 신년인사회’를 개최했다.

신년인사회에서는 인천항 이용 선사와 포워더, 내항·남항·북항·신항 부두운영사, 항만 노동자, 물류단지 입주기업 및 각종 부대서비스업체 등 항만 현장을 움직이고 있는 항만경제계 대표자와 관계자들은 물론 박남춘 인천광역시 시장과 박정철 인천지방해양수산청장, 송영길 더불어민주당 의원, 윤관석 더불어민주당 의원, 이귀복 인천항 발전협의회 회장, 이강신 인천상공회의소 회장, 지용택 새얼문화재단 이사장 등 유관기관과 지역경제계, 오피니언 리더 등 200여명이 참석했다.

참석자들은 이날 힘찬 악수와 따뜻한 덕담을 나누며 지난해 노고를 위로하고 신년의 각오와 의지를 다졌다. 이 자리에서 인천항만공사 남봉현 사장은 컨테이너 물동량 312만teu를 비롯해 지난해 인천항이 성공적으로 운영될 수 있었던 점에 대해 모든 항만 종사자들에게 감사사를 전하고, 항만시설은 개발 후 운영까지 많은 시간과 재원이 투입되는 만큼, 면밀한 수요예측을 통해 부두 및 배후단지가



적기에 공급될 수 있도록 준비할 것으로 의지를 밝혔다.

특히, 올해는 심혈을 기울여 건설한 크루즈 터미널 및 신 국제여객터미널을 개장하고 운영에 들어가는 첫 해이므로, 터미널 개장에 앞서 이용객과 선사가 불편함을 느끼지 않도록 준비하여 성공적인 개장이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또한, 2019년 325만teu 물동량 달성, 국민과 지역사회가 체감할 수 있는 사회적 가치 실현, 안전하고 깨끗한 항만조성을 위한 노력을 해 나갈 것을 다짐했다.

인천항만공사 남봉현 사장은 “항만이용고객과 파트너, 지역사회 각계 여러분이 한자리에 모여 서로 격의없이 이야기하면서 인천항 발전을 논의하는 자리였다”며, “신년인사회의 좋은 기운을 받아 기해년에도 힘찬 항해를 이어가겠다”고 말했다.

YGPA “2019년 전문가 조직으로 거듭나자”

여수광양항만공사는 1월 2일 광양항 월드마린센터 2층 국제회의장에서 시무식을 갖고 2019년도 업무를 본격 시작했다. 이날 시무식에는 공사 임직원 120여명이 참석했다.

차민식 사장은 신년사에서 “올 한 해는 공사와 여수·광양항의 미래 모습을 결정하는 중요한 계기가 될 것”이라며 “임직원들의 마음가짐, 고민과 노력, 선택과 결정이 성과와 결과물의 크기, 보람을 좌우하는 한 해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차 사장은 이어 올해 나아가야 할 방향으로 항만경쟁력 강화, 수요자 중심의 인프라 확충과 항만 운영의 효율성 향상을 꼽았다.



또한 사회적 가치 실현과 공작 기능 선도, 현장 중심의 책임경영 체계 확립과 소통·협력 강화를 새해 화두로 제시했다. 특히 차 사장은 “살아있는 전문가 조직, 현장에서 답하는 조직, 국민의 사랑을 받는 조직을 만들자”며 “현장에서 배우고 생각하며 보고, 듣고, 느끼고 매듭을 지어가는 전문가가 되자”고 당부했다.

BPA 시무식 “2019년 2250만teu 목표 설정”

부산항만공사는 1월 2일 오전 1층 대강당에서 전 임직원이 참석한 가운데 2019년 시무식을 개최했다.

남기찬 사장은 신년사를 통해 2019년 한해는 고유 사업의 적기추진과 항만운영의 효율성을 제고하여 부산항의 글로벌 경쟁력을 더욱 강화하고, 친환경 안전 항만 구현, 사회적 가치 창출, 인권경영 실현 등을 통해 부산항과 관련된 모든 종사자들이 행복한 한해가 될 수 있도록 전 직원들의 역량을 결집하자고 당부했다.

특히 지역사회의 기대가 큰 북항재개발 사업은 2022년 기반시설 완공을 목표로 기반시설을 채울 세부 콘텐츠 개발을 시작으로 좀 더 속도감 있게 추진하고, 스마트 항만, 녹색항만 조성 및 신남방, 신북방 정책과 연계한 다양한 일자리를 창출하며, 열악한 항만연관산업의 선진화 방안을 적극 모색하겠다고 강



조했다.

또한 부산항은 2018년 급변하는 해운환경과 글로벌 항만과의 치열한 경쟁 속에서도 전년대비 5.8% 증가한 2,167만teu를 처리하여, 당초 목표를 초과달성하여 사상 최대치를 기록했으며, 2019년의 물동량 목표를 세계 경제성장률 둔화와 국내경기 침체에도 불구하고 전년대비 3.8% 증가하는 2,250만개로 도전적인 목표를 설정하여 지역사회 발전에 이바지하고자 하는 강한 의지를 보였다.

선박안기공 시무식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 출범 준비 만전을”

선박안전기술공단은 1월 2일 본부 2층 대강당에서 공단 전임직원이 참석한 가운데 2019년 시무식을 갖고 새해 업무를 시작했다.

이날 시무식에서 이연승 이사장은 지난 한 해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많은 성과를 일궈낸 직원들을 격려하고, 신년사를 통해 올해는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으로 공단이 새롭게 출범함과 동시에 공단 설립 40주년이 되는 매우 뜻깊은 해로, 新 공단이 해양사고의 근본적 원인을 해결하고 해양안전문화 확산 등 해양안전체계를 굳건히 할 수 있도록 설립 준비에 만전을 기해 줄 것을 임직원들에게 당부했다. 아울러, 청렴한 자세를 바탕으로 한 공직기강 확립, 4차 산업기술 기반의 전문성 강화와 함께 건강한 조직문화 정착을 위해 노력해 줄 것을 임직원들에게 강조



했다.

한편, 공단은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법’ 제정에 따라 오는 7월 1일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으로’ 새롭게 출범할 예정으로, 新 공단은 기존의 선박검사, 여객선 안전운항관리와 더불어 해양사고 저감 및 해양교통과 관련한 교육·홍보·방송, 안전기술 개발·보급, 해양교통 관련 조사·연구 등의 기능을 수행하게 된다.

해양수산연수원 “세계 최고 해양수산 전문인력 양성기관으로”

한국해양수산연수원(부산 영도구 소재)은 1월 2일 제9대 이동재 원장 취임식 및 2019년도 신년하례식을 개최했다.

이동재 신임 원장은 취임사에서 “지난 근무 경험과 전문지식을 바탕으로 연수원이 세계 최고 해양수산 전문 인력 양성기관으로서 입지를 다지고, 열린 소통 체계와 끊임없는 혁신활동으로 공공성과 책임성 확보 등 공공기관의 사회적 가치 실현을 위해 최선을 다 하겠다”고 밝혔다.

이동재 원장은 1963년 대구 출신으로 서울대학교 경제학과를 졸업하고, 서울대학교 행정학 석사 및 미국 보스턴대 경영학 석사 학위를 취득했으며, 주요경력으로 기획재정부 지식경제예산과장장과 국고과장, 해양수산부 정책



기획관, 국립해양조사원장 등을 역임했다.

한편 이 원장은 기획재정부와 해양수산부 공식 근무 경험을 바탕으로 정부예산과 해운 및 수산업 전반에 대한 이해를 갖추고 있으며, 국제적 업무에도 탁월한 역량을 보여주고 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IPA “인천항 크루즈 터미널서 기해년 힘찬 포부”

인천항만공사가 1월 2일 오전 공사 대강당과 크루즈 터미널에서 2019년 시무식과 신년 다짐식을 갖고 △신규 항만인프라 개발 △사회적 가치 실현 △안전하고 깨끗한 항만 조성 △재정 건전성 확보와 미래 성장전략 추진 △물동량 유치 등 목표 달성을 다짐했다.

인천항만공사(IPA) 남봉현 사장은 이날 오전 열린 시무식에서 신년사를 통해 희망찬 새해 아침을 맞아 핵심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하되 특히 안전한 항만운영을 강조하였다.

인천항 항만인프라 개발사업은 수요를 고려해 차질없이 추진할 것을 당부하였으며, 올해는 우리가 심혈을 기울여 건설한 크루즈 터미널을 개장하고 운영에 들어가는 첫 해인 만큼 성공적인 터미널 개장과 모항 크루즈 출발이 되도록 준비에 만전을 기하자고 말했다.

또한, 공기업으로서 추진하는 모든 사업에 대하여 계획 단계부터 성과까지 국민과 지역사회가 체감할 수 있는 사회적 가치가 실현될 수 있도록 역량을 집중하고 시민참여를 확대하여 고객과 국민을 위한 서비스 기반 확대에 소홀함이 없도록 할 것을 당부했다.



또한 안전하고 깨끗한 클린항만으로서 선도적인 역할을 수행하고 ‘혁신’과 ‘내실’을 강화해 재무건전성 유지는 물론 크루즈, 신국제여객터미널 및 부두 등 투자재원이 투입된 시설에 대하여 투자효과가 되돌아 나올 수 있도록 시설 활성화에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을 주문했다.

그리고 기해년 경제상황도 만만치 않을 것으로 예상되지만 우리의 저력을 발휘하여 325만teu 달성을 위해 전사적으로 노력하자고도 당부했다.

한편, IPA는 사내에서 시무식을 끝낸 뒤 남봉현 사장과 최근 신규 입사한 신입사원들을 포함한 팀장 등 주요 임직원이 참석한 가운데 인천항 크루즈 터미널에서 신년 다짐식을 개최했다.

해항회 신년교례회 “회원을 위한 해항회 될 것”

해항회가 새로운 수익구조를 마련, 조직의 내실을 다지고 회원을 위한 단체로 다시 태어나겠다고 2019년 포부를 밝혔다.

해항회는 1월 5일 2019년 신년교례회를 개최하고, 2019년 더욱 더 회원에 다가갈 수 있는 단체로 거듭나겠다는 계획을 밝혔다. 서울 그랜드컨벤션센터에

서 열린 이번 신년 교례회에서 조남일 해항회 회장은 2019년에 해항회가 균형예산 편성이 가능해졌다고 밝혔다.

조 회장은 “해항회는 사회적 여건 변화로 수익사업을 그만두면서 수익이 감소했고, 이에 따라 적립금을 활용하는 어려운 시기를 걸어왔다”며, “이 같은 상황에서 운영 효율화와 회원님들의 협조로 어려운 시기를 잘 버텨왔다”고 지난 시간을 회고 한 후, “원룸 임대 등 2016년 신규 수익사업을 개시했고, 2017년 시작한 태양광 발전 사업도 안정화 되어 가면서, 올해 하반기부터 연간 2억 5,000만원 확보가 가능하다”며, “올해부터 균형 예산 편성이 가능 할 것”이라고 밝혔다.

올해 해항회의 운영 방침을 더욱 회원 중심으로 가려가겠다고 밝혔다. 조 회장은 “금년에는 신규회원 가입을 통해 인적 네트워크를 확대하고, 친목을 도모하며, 이와 더불어 지회 중심에 지방회원 친목도모, 동호회 모임 활성화 등을 통해 더욱 회원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해항회를 운영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한편 이날 개인 건강 문제로 신년 교례회에 참석하지 못해 조남일 회장의 신년사를 박정천 상근부회장



이 대독하는 것으로 신년사를 갈음했다. 개회사에 이어 축사를 맡은 해양수산부 김양수 차관은 올해 해양수산부에 중점과제를 설명하고, 이에 대해 해항회 회원들의 지지를 부탁했다. 김 차관은 “해항회 선배님들과 신년 인사를 나눌 수 있는 신년교례회에 참여해 기쁘게 생각한다”며 “2019년 해양수산부는 해운사업 재건 성과가 가시화 될 수 있도록 모든 역량을 동원하고, 선박 신조발주, 해운 물류기업 재건 등을 적극 추진할 계획이다. 이와 더불어 해양레저 활성화 등도 추진할 계획이다. 해양수산부의 이 같은 정책시행에 해항회 선배님들의 많은 지지와 관심을 부탁드립니다”고 축사를 밝혔다.

5대 해운항만청장을 역임했던 정연세 명예회장은 건배사를 통해서 “해항회 발족이 어제 같은데, 이렇게 또 다시 새해를 맞이하는 것을 보면 감개무량하다. 조남일 회장이 그동안 살림살이를 꾸며 나가느라 애쓰고 고생하느라 건강이 안좋아져서 마음이 아프다”며, 조남일 회장의 건강과 해항회 가족의 무궁한 발전을 위해 건배를 제의했다. 한편 이날 신년교례회에는 200여명의 전 현직 해양수산 관련 공무원들이 참석해 새해 인사를 나누었다. <이정희>

‘자랑스러운 한국해양대인’ 오거돈 부산시장 · 김동일 명예교수

1월 17일 한국해양대 총동창회 신년하례회서 시상

한국해양대학교와 한국해양대 총동창회는 모교와 동창회 위상을 높인 동문에게 수여하는 ‘제19회 자랑스러운 해대인상(2019년)’ 수상자로 오거돈 부산광역시장(전 한국해양대 총장)과 김동일 명예교수 두 명을 선정했다.

한국해양대 총동창회는 1월 17일 오후 6시 부산 롯데호텔에서 ‘2019 총동창회 정기총회 및 신년하례회’를 열고 이들 자랑스러운 해대인에 대한 시상식을 가졌다.

오거돈 부산시장은 2008년 3월 한국해양대 제5대 총장으로 부임하여 대학의 미래지향적 발전을 위한 다양한 계획을 수립·추진했다. 특히 역대 최고의 기금 모금 성과로 재임 기간 중 800억 원대였던 대학 재정 규모를 1,600억 원대로 두 배 가까이 상승시켰고 해양특성화 분야 국책사업 수주를 통해 경쟁력을 높였다. 또한 2010년 국내 대학 총장 최초로 국제기구인 세계해양대학교연합(IAMU)의 의장(2010~20

11)으로 선출돼 대학의 글로벌 역량을 한층 강화했다. 이 외에도 해양산업발전협의회 공동이사장, 세계해사대학 이사, 한국조선기자재연구원 공동이사장 등을 역임하여 해양·해사분야를 비롯한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았다.

김동일 명예교수(한국해양대 항해학과 71학번·27기)는 한국해양대 초대 기획실장을 역임하며 한국해양대를 해양특성화 종합대학으로 승격시키는데 크게 이바지했다. 또한 세계 최초의 카본-페라이트 전과 흡수체 개발 등으로 과학기술유공자 대통령표창, 제1회 부산사랑 기술부문 우수인재상 등 다수의 수상경력을 보유하고, 한국전자파학회회장, IEEE 전파분과 위원장을 역임하는 등 국내외 전파·방송통신분야를 대표하는 학자로 활동해왔다. 현재는 한국해양대 전자파연구소 소장으로서 후학들의 자문과 모교 발전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안전한 인천항 되게 하소서”

13회 인천항 용왕제 성료, 인천항만물류 관계자 300여명 참가

인천항을 운항하는 선박들의 안전 항행을 기원하는 인천항 용왕제가 1월 19일 인천 월미산에서 개최됐다.

올해로 13년째를 맞이하는 월미 용왕제는 매년 1월 인천항이 내려다 보이는 월미산에서 인천항을사랑하는 800모임이 주최하는 행사로 인천 항만물류업체가 지난 해를 돌아보고, 2019년 한 해 동안 항만물류업체의 발전을 기원하기 위해 진행되었다.

제주(祭主)를 맡은 인사800 남홍우 회장은 축문을 통해 “지난해 인천항이 처리한 컨테이너 물동량은 대외불확실성 속에서도 312만teu라는 최대 실적을 거

뒀다”며, “인천항에 동지를 둔 모든 구성원들이 서로 화합하고 단결해서 오늘의 위기와 난제를 해소함은 물론이고 더욱 더 활기차게 성장 발전하고 위정자들과 행정기관이 모든 항만도시에 고른 혜택을 주는 정책을 펼 수 있기를 기원한다”고 제를 올렸다.

한편 이날 용왕제에는 인천항만공사 이정행 운영본부장, 인천항발전협의회 이귀복 회장, 인천항만물류협회 김종식 회장, 인천경제연구원 배준영 이사장 등 인천항만물류 관계자 300여명이 참석해 안전한 인천항을 기원했다.